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의 유학

Keimyung University
SHIN JIWON

일본에서의 4월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달이다. 학교에서는 동아리 신입 부원 모집을 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나도 그 중 마음에 가는 동아리에 참가를 해보았다. 일본의 동아리 생활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약간 달랐다.

학교 수업은 지난 학기보다 따라가기 조금 더 수월했다. 일본의 수업 시스템에 조금은 익숙해진 덕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일반 과목이 아닌 유학생 수업도 여러개 들어보았다. 이번 학기에는 조금 여유 있는 학교 생활을 해보고 싶었다. 그 덕에 각 전공 과목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 각 과목의 공부 시간이 늘었다.

또, 5월과 6월에는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일본의 대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수업 외의 대학생활과 취업 준비 등, 일본인들의 대학생활을 옆에서 같이 보면서 한국과의 다른 점, 새로운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즈음에는 학교 수업에 익숙해져서 사용 언어가 다를 뿐, 배우는 과정은 똑같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점차 이 학교에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7월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더웠다. 수업을 위해 잠시 이동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더운 날도 있었다. 그래서 낮 시간대에 별다른 외출을 할 수 없었다. 휴일에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처음의 들떴던 마음도 이젠 가라앉았고, 이 무더위에서 굳이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 것 같았다. 하지만 밤에 가는 동네 마트는 낮과는 다른 분위기라서 좋았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외국어 교육 센터 주관의 외국어 카페에서 한국어 담당을 맡았다. 나 혼자 기획과 진행을 다 해야하는 것이라 처음엔 부담이 조금 있었지만, 하다보니 즐거웠다. 다만 참가자에 맞춘 난이도를 설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 그래도 익숙해져가는 일본 생활에서 한국어카페라는 활동을 해보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